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2월 17일(금)
...(음력 1월 27일)...
Пятница
17 февраля 2023г.
№ 6 (12023)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유즈노사할린스크, 군복무 수행 중 전몰장병 추념

2월 15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조국의 국경 넘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러시아인에 대한 추념의 날과 군사적 충돌 및 러시아 연방과 소비에트 사회적 연맹 지대에서 반테러 작전의 전투 중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군사적 용맹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거행됐다. 슬라와 광장 비탄의 어머니 기념비 앞에 참전 용사, 군 관계자, 사회단체 및 전몰 장병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모였다. 추념식에는 사할린주 정부,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 주두마,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 '통합 러시아'당 사할린 지부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할린과 쿠릴 전몰장병들을 향한 묵념을 하고 기념비에 헌화했다.

(이예식 기자 촬영)

러시아 연방 검찰청 대표 사할린주의 발전 속도 높이 평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러시아 연방 극동연방관구 검찰청 총장 안드레이 몬도호노브의 주재로 사할린주 검사 전원 확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2022년 검찰청의 사업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참석했다.

"사할린주는 러시아 연방의 가장 집중적으로 발전하는 지역들 중 하나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2022년 사할린주는 살기 좋고, 편안한 행정자치체지역들 상위 25위에 들었다. 이런 평가는 일련의 순위로 표기되는데 극동 지역에서 유사한 순위에서 사할린주가 단연 앞서고 있다. 국내 투자기후 상황 순위에서도 사할린주는 국내 우수 지역 상위 5위 안에 든다. 러시아 국민소득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안드레이 몬도호노브가 언급하며 보고문 발표에서 대러 제재 속에도 2019년부터 사할린에 주택 건설량은 1.5배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매해 사할린과 쿠릴에서는 50만m²가 준공되고 있다. 최근 2년간 노후주택의 주민들 8천여 명이 편히 개선된 주택으로 입주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서방의 압력과 대러 제재 시행에 맞서 우리의 우선적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사회적 안정과 번영이다. 주요 사업 방향의 하나는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이며, 이들의 생활을 위해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부를 통해 약 200개의 사회적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빈곤과의 투쟁>기획의 일환으로 18,000명의 사할린 지역 주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700가구의 생활여건이 개선되었다. "고 말했다.

지난해 장애를 가진사람들과 장애인 대표들이 주지사를 찾아가 제기한 300개의 문제에 집중하여 해결하는 가운데 재활 기술 장비가 1,792명의 장애인들에게 제공됐다.

지역에서는 가스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을 간 7개 시설들에 건설된 가스 배관망의 총 길이는 156.8km나 된다. 코르사코브에는 가스 배급소가 건설됐으며, 1,246개 주택들과 아파트를 비롯해 50개의 중소기업들에 가스화 작업이 이뤄졌다. 또한 코르사코브,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 퇴몴스코예 2개 지역 등에 4개 가스 보일러 시설이 건설됐다. 사할린에 가스화 작업 수준은 2018년에는 14%였으나 57%로 증가했다.

2022년도 국가지원책 덕에 차량 970대가 천연가스 차량으로 전환됐다.

사할린주의 의료체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2022년 외래진료소에서 운영체계

를 변경하여 환자들의 흐름을 재배치했다. 외래진료소에서 환자 접수량은 30%로 증가했고, 대기표에 따른 대기시간도 단축되었다. 대기자 명단 덕에 추가로 10만5천 명이 예약됐고, 2022년 보건소에 접수된 환자는 4백만 명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9만 명의 사람들이 심층 검진을 받았고, 2021년에는 7만3천 명이 받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앙 보건소의 새로운 병동이 건설된 덕에 건강검진량을 2배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사할린의 동원병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특별군사작전 지역으로 군복과 기계도구와 생활용품, 식품, 장병들이 요청하는 약품을 보내고 있다. 조국을 수호하는 장병들의 가족에게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취업 알선, 교육, 의료지원 혜택과 재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돈바스로 동원병들의 어머니들과 아내들이 방문하여 현지 장병들과도 교류하며,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사할린의 의료기관들에서는 동원병들의 재활을 위한 정신병리학과가 조성돼 250명이 이곳에서 진료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사할린주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감독기관과 사법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지사가 덧붙였다.

단신

<지방자치단체의 대화> 연방 마라톤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소개

2월 14일(화) 모스크바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연합이 개최한 포럼이 열렸다.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경험과 효율적인 관리책 추진을 주제로 한 화상 포럼에 러시아 새로운 지역들을 포함한 8만 명의 전국 시장들, 행정부 대표와 마을 구역장들과 대통령 행정실 제1부대표가 참석했다. 포럼은 러시아 연방 89개 행정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1만9천 명의 대표들을 한 데 모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시장 세르게이 나드사진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소개하며 우선 사소하고 비체계적인 것들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참가자들에게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효율적인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할린주, 전국 스노보드 경기 개최

2월 22일(수)부터 3월 1일(수)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스노보드 종목 전국컵 및 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경기가 '고르니 위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 스키 코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스노보드 평행회전 종목에서 우승을 두고 알타이, 캅차트카, 페름, 크라스노다르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연해주, 노위시비르스크, 스페르틀롭스크, 첼랴빈스크, 사할린주, 타타르스탄 공화국 등 기타 러시아 다른 지역들에서 출전한 가장 우수한 선수들 120명이 경쟁한다.

사할린에 조국 장병 가족위원회 창설

사할린 동원병들의 가족들이 사할린에서 조직한 조국 장병가족위원회가 조직됐다. 이 조직은 연방 차원의 사회적 단체로서 지난해 11월에 출범했다. 이 단체는 돈바스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사할린과 쿠릴 장병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회적, 법적, 심리적 지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2월 15일(수)에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재로 이 사회단체의 첫 모임이 조성됐다.

새고려신문

2023년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에 호감도와 우호도를 높이도록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의 3년 임기가 끝나 2월 22일 귀국하게 된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이병일 원장과 그 동안 교육원 사업과 취미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곧 3년 임기가 끝나실 텐데 원장님께서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일하시는 동안 코로나 사태도 터졌고, 특수 군사작전으로도 많은 제한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공무비자 갱신하러 한국과 사할린 사이를 오고 가는 문제였죠. 3일씩 걸리는 긴 이동에 많은 돈을 들여 오가다 보니, 다른 사업에 쓸 돈도 낭비하고 중요한 행사에 참여도 못하거나 사업을 연기하거나 하는 사례가 빈번했어요. 그리고 2022년 한 해는 달러와 루블 환율에 연어 맞다 보니 예산이 금방 소진되어 황당했습니다. 작은 규모는 제 돈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임차료는 한인회에서 할인해 주시고, 지급 방법을 달리하는 계약 수정을 통해 해결하기도 했어요. 직원들 초과 근무도 시키지 않았으며, 수업 발표회같은 재미있는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 사람이라, 전통 문화 관련된 소품들은 제가 사거나 기증받아 그 먼 길을 배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아내가 준비해 준 제 물건을 빼고 전달할 것, 기증받은 물

품을 하나라도 더 넣었죠. 그런데 그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큰 일이었다고 봐요. 지나면 다 그림고 애잔한 추억입니다.

- 현재 교육원에서 어떤 수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강사진과 수강생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 2023년 2학기 수업은 2월 6일에 시작했는데, 제가 본 첫날 모습 중에서 가장 복잡한 날이었어요. 발 디딜 틈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어요. 물론 날이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정규 한국어 강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10개반, 평생교육 강좌 한국어 문화 2개반이 모집되었어요.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학생 2개 반이 주말에, '에트노스'의 선생님 대상 한국 문화반 1개 반이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264명이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님들은 교육원 직원도 있고, 교수님 두 분, 김나지아 및 중학교 한국어 선생님들 두 분이 수고해 주십니다.

- 어떤 수업이 인기가 많습니까? 한국 요리 수업 과정은 계속 하고 있는지요?

- 제가 볼 때 가장 인기있는 강좌는 한국어 1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학생이 가장 많고 집중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한국 문화 1반, 2반도 인기가 대단합니다. 한국 요리 강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사라진 후로 강사님 사정, 예산 문



제 등 때문에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식체험 특별강좌라도 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어 자체가 그냥 인기있는, 관심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실을 들여다보면 모두 밝고 의욕의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제가 가야 할 날이 머지 않아 아쉬운 눈으로 바라봐서 더 초롱초롱하지 모르겠습니다.

- 원장님께서 임기 동안 순수한 한국어 수업에만 아니라 창의력을 키우는 반도 개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빅토리아 작가가님이 하신 '글쓰는 사할린' 수업이요? 빅토리아 작가님 소식을 새고려신문에서 보고 나서 딱 바로 제가 느끼던 것을 책으로 써서 내셨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신문사 대표님을 통해 작가님하고 영어로 소통하면서 강좌를 만들었죠. 참가자분들은 많지 않았지만, 글을 쓰고 싶었던 많은 분들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창

의적이라기 보다는, 시간이 흘러 소멸되거나 숨겨질 기억과 이야기들을 글로 남겨야 한다는 절박함에 생겨 난 글쓰기 수업이었지요. 창의력도 포함되겠지만, 2세분들에게 유독 깊이 박혀 있는, 슬픔과 고통의 역사를 살아 온 부모들 또 부모들을 보며 자란 어린 시절의 삶에 대해 써보자는 취지입니다. 덕분에 저도 어머니에 관한 긴 글을 썼고, 러시아어로도 번역되어 새고려신문에 실렸지요.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또한 한국어 교사를 하시다가 영주귀국하신 고 허남훈 선생님은 사할린에 와 있는 동안 '한국 문화의 향기'라는 강좌를 몇 주 동안 해 주셨어요. 허남훈 선생님이 한국에서 시집도 내시고, 한국어 교사이셨고, 한국에서 사시던 경험 등을 살려 수업을 재미있게 이끌어 가 주셨어요. 안타깝게 자녀분들 보러 사할린에 오셨다가 코로나로 별세하셨어요.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 사할린 한국교육원은 교육원 내 수업만 아니라 한국어 채택 학교, 한인회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 그리고 한국어 수업을 하는 유치원도 나름대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학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2교, 코르사코브에 2교 뿐입니다.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도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계속 감소만 하고 있습니다. 지방 도시들은 1

세대 한국어 교원이 영주귀국 하신 이후 공백을 회복하지 못하고, 약간의 생활비,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 해도 희망하는 한국어 교사가 없습니다. 지방도시의 한국어 교과 개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지역의 한국어 교원을 특별히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사할린국립대와 교원자격을 주는 특별 프로그램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름방학을 이용해 지방도시 한국어(문화) 캠프를 실시했는데, 그런 활동도 한국어와 친밀해지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국어 교과 채택이 아니라도 호감도와 우호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재단의 운영비 지원금이 배부되는데, 교육원이 배부하고, 정산을 돕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수적으로 한글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원비는 강사비,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정산 과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지역 한인회가 운영하는 한글학교 9교, 태권도학교가 운영하는 한글학교 3교 총 12개가 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멀수록 규모가 적고, 최소액만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한인공동체의 에너지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아주 조금 돕고 있다고 할까요.

(7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모네론 섬, 2023 모스크바 다이브쇼 전시회에서 발표돼

'2023 모스크바 다이브쇼' 전시회에서 사할린의 다채로운 수역의 풍경과 모네론섬을 발표했다고 사할린주 관광부가 전했다. 행사가 2월 9일 -12일까지 모스크바의 고스핀니 드워르에서 진행된 가운데 잠수부와 수중 사진가, 요트 선수, 프리다이빙 선수들을 위한 가장 필요하고도 흥미로운 아이디어 제품들이 전시되었다.

"모스크바에서 즉각 관심을 끈 사할린의 몇 개 전시물들은 모네론 섬과 깊고, 매력적이며 투명한 사할린의 바닷속과 다채로운 수역의 풍경들이다"라고 전했다.

2월 11일에는 <모네론 - 극동의 동화>(12세 이상)라는 영상이 전시회에서 상영됐다. 이후 첫 해양자연공원에서 관람객들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하여 최고의 상품으로 사할린+모네론 여행상품권이 주어졌다.

Остров Монерон презентовали на выставке Moscow Dive Show 2023

Остров Монерон и видов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акватории Сахалина презентовали на выставке Moscow Dive Show 2023.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ся в Telegram-канале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с 9 по 12 февраля под крышей Гостиного двора в самом центре столицы. Там собрали самые интерес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для дайверов, подводных фотографов, яхтсменов, фридайверов.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островных стендов — остров Монерон и манящая прозрачными глубинами и видовым разнообразием акватория Сахалина»,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11 февраля гостям выставки показали фильм «Монерон — сказк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2+). Затем среди зрителей разыграли подарки от первого морского природного парка. Главным призом была поездка на Сахалин + Монерон.

<이게 진짜 명절이다!> 홈스크 주민들을 위한 즐거운 축제 조성

'홈스크'텔레라디오콤포니아에 따르면 2월 12일 남부 도시에 새 입주주민들을 위해 조성된 축하 행사가 슈콜나야 거리 17a,17b,17b,17r 주택들의 마당에서 진행됐다. 홈스크 주민들을 위한 축하 프로그램에 캐릭터 인형탈, 흥겨운 경연, 막 구운 빵과 따뜻한 차, 선물들이 마련됐다. 주민 중 한 명이 구운 도너츠를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한 것은 주목할 만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동글게 손잡고 노래하며 춤추고, 눈을 던지며, 눈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경연과 릴레이 외에 만나 주민들 앞에서 안나 사기야흐메토와의 지도로 <홈스크의 섬광>아트스튜디오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 행사는 <러시아 우수 겨울 주택가 마당> 전국 경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통합 러시아'당이 기념품과 선물, 풍선을 나눠주며 마무리했다. 몇몇 주민들은 영화 관람표와 수영장과 '홈스크 아레나'스포츠 단지 이용권을 받았다.

«А тут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для жителей Холмска организовали веселые гулянья

Как сообщает ТРК «Холмск», в южном городе для жителей новостроек организовали праздник в прошедшее воскресенье, 12 февраля. Торжество проходило во дворе домов 17а, 17б, 17в и 17г по улице Школьной. В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для холмчан были ростовые куклы, веселые конкурсы, горячий чай со свежей выпечкой и подарки.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одна из жительниц испекла пирог и вынесла на общее угощение. Дети и взрослые водили хороводы, танцевали, кидались снежками и рисовали на снегу. Помимо конкурсов и эстафет, арт-студия «Холмские искорк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нны Шагиахметовой выступила перед горожанам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Лучший зимний двор России».

Праздник завершили вручением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подарков и сувениров от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Некоторые холмчане стали обладателями абонементов

на посещение кинотеатра, плавательного бассейна и 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Холмск-Арена».

사할린, 러시아의 로맨틱한 장소로 꼽히다

러시아 여행사협회가 '알레안'국내 여행사의 조사를 인용해 청혼을 위한 로맨틱한 여행지로서 가장 인기있는 장소들의 순위를 작성했다. 여행사 설문조사에는 3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 러시아인들이 2월14일에 반려자 함께 떠나고 싶은 가장 인기있는 지역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응답자 46%), 고르니 소치(응답자 28%), 칼리닌그라드(응답자14%), 사할린(응답자 7%)을 꼽았다.

사할린은 로맨틱하고, 절경을 이루는 자연과 바다로 여행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여행자들이 꼽은 사할린의 로맨틱한 장소들은 '아니와'등대, 프치치콧, 웰리칸곶, 굴을 맞볼 수 있는 부세 호수, 온천욕을 할 수 있는 카사트카만, 안키토 화산 들판이 있다.

러시아인들이 청혼할 만한 곳으로 꼽은 곳은 '아니와'등대와 '고르니 워즈두흐' 스키장에 있는 '빅스타 601' 레스토랑이다.

Сахалин вошел в число романтических мест России

Компания АТОР со ссылкой на исследова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уроператора "Алеан" составила рейтинг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мест для романтических поездок, в том числе для предложения руки и сердца. В опросе туроператора участвовали порядка 30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ыми местами, куда россияне хотели бы отправиться со своей второй половинкой на 14 февраля, стал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46% опрошенных), Горный Сочи (28% опрошенных), Калининград (14% опрошенных), а также Сахалин (7% опрошенных).

Сахалин привлекает туристов своей островной романтикой, неповторимой природой и океаном. Романтическими местами тут считаются туры на маяк "Анива", мысы Птичий и Великан, озеро Буссе с дегустацией устриц, вулкан Баранский и бухту Касатка с купанием в термальных источниках, лавовое поле Янкито.

(8면에 계속)

진 울리아 박사의 성공 레시피는 도전, 노력과 가족의 사랑

지난 10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새고려신문사가 주최하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기획의 일환으로 진 울리아 사할린동포 역사학 준박사와 만남이 개최되었다.

이날 만남의 주제는 '과학에서 삶, 삶에서 과학'이었다.

2월 8일 러시아에서 과학을 낳을 기념하는 날이어서 새고려신문사 배 워도리아 사장은 우선 진 울리아 학자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선사했다.

1979년생인 진 울리아 박사는 사할린한인 역사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25전쟁 시작 전에 사할린동포들의 영주귀국이 가능했다는 연구가 큰 관심사가 되었고 이 연구가 그의 준박사 논문의 일부가 되었다.

이날 동포들과 만남에서 울리아는 자신의 연구가 아닌 학자가 되어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학자로서의 길은 남들과 달랐다. 공부를 잘 했지만 재정적 사정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을 시작했다. 자격증이 별로 필요치 않은 서비스 분야의 일을 했다. 동포 부모들은 항상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개념을 받아들인 울리아는 대학에 입학할 의향이 있었다. 사할린국립대 역사학과에서 통신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으면서 대학공부 기간이 훨씬 길어졌다. 졸업할 무렵에 한 교수가 대학



원 준박사 (кандидат наук) 과정을 밟을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인 울리아는 이후 이 과정에 세 번 정도 지원한 후에야 결국 붙게 되었다. 누구도 믿지 않은 사실이다. 통신으로 학과를 졸업한 후 역사학에 몰두하려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에는 그것이 더욱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대학원 담당교수의 추천으로 사할린한인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 전에 울리아는 이 주제에 아무 관심이 없었고, 이 테마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 담당교수가 울리아에게 사할린한인사 연구를 적극 추천한 데는 그녀에게 동포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사할린 코레이스키 클럽과 새고려신문사 초청으로 잘 알려진 한반도 연구자인 안드레이 란코브 국민대학교(서울) 교수가 사할린을 다녀가며 울리아에게 "이런 연구를 하려면 꼭 한국어 공부를 해야 하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울리아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연구도 못 하겠다'는 생각

에 도전해 나서 고려대 석사 과정을 밟게 되었다. 여러 고생이 많았지만 그동안 한국인들의 사고방식도 이해하게 되었고, 연구가 적성에 맞는 걸 알게 되었다.

울리아를 통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에 울리아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소속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연구소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역사학 박사논문 (докторская диссертация) 발표만 남았다.

현재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과학편집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녀는 자신의 연구책 보다 다른 학자들의 연구자료 출판에 많은 신경을 쓴다. 그리고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에도 참여하고 박사논문을 비롯한 다른 연구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정말 연구에 대한 욕심이 많은 역사학자다. 지금에 이르기까지에 대해 울리아는 말한다. "저를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 특히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든



든합니다."라고 진 울리아 준박사는 고백했다.

이날 만남의 자리에 울리아 어머니도 참석했다.

만남을 찾아온 참석자들은 모녀 사이의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최 빅토리아 작가는 "울리아가 제 책의 사할린한인사 부분을 봐주셨기 때문에 이날 만남에 꼭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생각과 달리 연구 이야기가 아니라 도전, 가족,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가 엮였습니다. 새고려신문사가 주최하는 이 행사들이 주인공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걸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날 재미있는 질문을 한 참석자들에게 주 향토박물관에서 발행한 '박물관 소식'잡지와 '사할린 한인'도록을 전했다.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기획 일환의 모임은 3월에 개최된다. 이 기획은 '가가린'호텔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떠나는 이, 발병이나 나 주련?

사할린한국교육원장 이병일

서너 걸음 걸었을 뿐인데,
갈래 갈래 기회의 오솔길 다 단했다.
여기는 열두 계절의 끝자락,
풍설의 섬에 내린 첫날 전야의 그 즈음,
더 갈 길이 없는,
다시 오기 위해, 가기 위해
돌아서야 한다

영원을 살듯 다사로운 들판에 춤 놀다
체림샤, 크랍의 봄맛에 입술 떨리다
오호츠크의 파도, 햇살에 짙게 눈부셨다
낮은 단풍이 건네던 순간의 멋을 지나
나는 장중한 눈보라의 아리랑 누각을 돌아
삼년 아리랑 고개 이제 넘어간다

코르사코프 언덕에 그 빨간 눈길들
미즈호 마을의 원한 서린 영혼들
빅이코프, 시네고르스크의
검붉은 탄식들 가슴에 담아
무거운 사랑의 어깨로 돌아서야 한다

사할린 이제 사랑의 섬, 떠나는 이여!
너댓 걸음 못 가 발병이나 나 주련?

사할린주, 생활의 품질에 따른 지역별 순위 상위 20위 안에 들다

전략 주도청의 스웨틀라나 추프셰와 청장의 주도로 주민들의 생활에 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정부 능력 평가를 2번째 집계한 '생활의 품질'에 따른 지역별 순위를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할린주는 지난해와 비교해 7위나 오른 18위를 차지했다. 순위 집계 작성 시 10개 항목이 평가됐다. 이는 의료서비스, 교육과 개발, 주택과 제반시설, 소비와 여가, 청결과 생태환경, 통합과 평등, 안전, 사회복지, 공공 업무와 서비스, 취업과 개인사업의 기회이다. 순위 결정에 지역 통계 자료와 지리적 분석 및 주민 설문조사 등 총 141개 지표들이 반영됐다. "생활의 품질 순위는 행정자치지역 자체 발전의 활동성을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할린주는 질적으로 균형 잡힌 생활의 품질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의료, 교육, 운수 사업 분야 등에서 많은 지표들이 우수하게 변화했다."고 스웨틀라나 추프셰와가 설명했다.

벽촌 마을들에서는 전기사고 시 복구서비스 가동률이 11%로 상승했고, 도시 인근 마을들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사업도 개선됐다. 걸어서 10분 내에 대중교통 정류장이 있는 주거지에 사는 인구 비율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도로의 품질과 벽촌 마을에서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주거지에 따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비율은 32%에서 25%로 낮아졌고, 장애 판정을 받는 평균 시간은 몇 배나 증가했다.

"순위 결과들은 외래환자 진료소 의료지원 제공, 학생들의 보충교육 체계 개발, 대중교통의 완성 등의 개발을 위한 주요 부문들을 지역 수장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지역 지도자들의 성공적인 운영 실태 분석과 실태 분석의 반복이 행정자치지역들 간 불균형의 감소와 지역 개발 공동의 긍정적 동력을 제공한다."고 전략주도청의 청장이 말했다.

올해 상위 10위에 오른 지역들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튜멘주, 야말로네네츠크 자치구, 한티-만시스크-유그라, 타타르스탄, 벨고로드주, 체첸, 툴라주, 칼리닌그라드주이다.

2023년 1월 사할린주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2023년 1월 사할린주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12월에 비해 100.59%로 나타났고, 2022년 1월에 비해 112.32%(2022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0.37%, 이에 비해 2021년에는 106.34%)로 집계됐다.

식료품 가격은 한 달 만에 100.20%였고, 이에 비해 2022년 1월에는 113.52%였다.

비식료품은 100.27%이고, 이에 비해 2022년 1월에는 113.52%였다. 서비스 품목은 101.76%, 이에 비해 2022년 1월에는 109.13%로 기록됐다.

한 달 만에 식료품은 감자를 포함해 1.3% 올랐고, 레몬은 16.0%, 양배추는 9.6%, 당근은 7.3%, 마늘은 6.6%, 오렌지는 4.2%, 양파는 3.8%, 포도는 2.4%, 비트는 2.0%, 오이는 1.6%, 사과와 1.4%로 가격이 올랐다. 반면 배는 2.9%, 토마토는 2.6%, 바나나는 1.0% 가격이 하락했다.

달걀의 가격은 3.1% 올랐다. 사할린주에서 평균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식료품은 설탕이 5.5%, 버터가 1.9%, 밀가루와 해바라기유는 0.2% 저렴해졌다. 마카로니와 곡물제품은 3.9%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메밀은 7.0%, 마카로니와 세몰리나는 5.1%, 귀리와 보리는 4.4%, 파스타는 3.1%, 조는 1.9%, 쌀은 1.1% 저렴해졌다.

식제품 가운데 가격이 상승한 제품은 탄산음료, 마요네즈, 맥주, 아이스크림, 콜바사, 발효유, 빵류, 다양한 제빵, 염장 청어, 곡물빵, 채소 통조림, 염장 채소, 연유, 기름에 절인 생선 통조림과 훈제생선, 껍에 든 홍차, 트뤼룩, 연어알 통조림, 손질된 냉동 연어류, 냉동 오징어, 과일 주스 등이 1.0% -5.2% 올랐다.

비식품 품목 중에서 1월에 가격이 오른 제품들로는 목재 합판이 9.4%, 스마트폰이 4.7%, 통나무가 4.0%, 커튼 원단이 3.8%, 샤워젤 2.9%, 전자렌지와 재봉틀이 2.6%, 페인트, 에나멜 2.5%, 침구

커버 세트 2.3%, 진공청소기 1.7%, TV가 1.4%, 삼푸와 면도크림이 1.2% 상승했다. 생필품 목록에 든 비식품 품목들 중에 가격이 오른 것은 성냥, 차량 휘발유, 물휴지, 경유, 세수비누, 세탁세제, 휴지, 여성 위생용품, 유아 크립, 손소독제가 0.2% -1.2% 상승했다.

반면 가격이 하락한 제품은 화장실 휴지, 세탁비누와 치약, 칫솔, 아기 기저귀가 0.8% - 3.8% 가 저렴해졌고, 의약품의 가격은 상승했다.

1월 기준 서비스 부문 중 가격이 상승한 부문은 유치원 원비 62.1%, 공증업무 17.7%, 시내 대중교통 이용료 12.1%, 관광 서비스비(러시아 흑해 연안 및 크립 반도 여행)10.9%, 유언장 인증 공증 9.1%, 해외 관광 분야 서비스 7.0%, 주요 설비 공사비 5.2%, 의료 서비스 4.0%, 이동통신료 3.9%, 직업교육과정 수업료 3.6%, 시외버스 요금3.3%, 항공권 이코노미석 2.9%, 자가용 세차 2.4% 가 올랐다.

반면 가격이 하락한 부문은 승용차 운전 교습비0.5%, 러시아 내 소포 발송료 1-2kg- 4.9% 하락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으로 기초식품군의 가격에도 변동이 생겼다. 기초식품군에는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소비하는 식품 33가지가 포함돼 있다.

사할린주 평균 한 달 간 기초식품군의 가격은 2023년 1월에 8,142.15루블리였고, 2022년 12월보다 0.9% 올랐다.(2022년 1월에 기초식품군은 7,438.56 루블리였고 월 가격 상승률은 1.4%였다.)

2023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기초식품군의 가격은 8,025.90 루블리, 코르사코브는 8,040.87루블리, 포로나이스크는 7,881.09 루블리, 오히는 9,036.81루블리로 집계됐다.

사할린 통계국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Юлия Дин: «О жизни в науке и о науке в жизни»

10 февраля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Гагарин» состоялось очере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Гостем встречи стала историк, ученый, сотру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Юлия Ивановна Дин. Юлия часто выступает на различных площадках, дает интервью, читает лекции, доклады на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и семинарах.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иктория Бя поздравила Юлию с Днем науки, который страна отмечала накануне, 8 февраля, и отметила, что диаспора гордится, что у нее есть такой ученый, который занимается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У Юлии за плечами магистратура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аспирантура СахГУ, она защитила кандидатскую,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кончила докторантур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РАН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сейчас пишет докторскую.



Эта встреча для Юлии стала особой, историк впервые рассказывала не о результата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а о своей жизни и пути в науке.

Начала свой рассказ Юлия с благодарности своей семье, маме, которая помогала в становлении ученого, проявляла заботу, освобождая от бытовых проблем. Много историк говорила и о своей корейской родне, проживавшей во Владимировке, о диаспоре, в которой выросла, и которая помогала и направляла ее в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Юлия не предполагала, что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наукой, тем более историей.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с удивлением узнали, что ученый училась в институте заочно. Поскольку ее взросление пришлось на наиболее тяжелые для страны годы – 1990-е гг.,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школы она пошла работать. Учиться было сложно, поскольку учебу приходилось совмещать с работой и воспитанием ребенка. По совету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ешила поступить очно в аспирантуру, что удалось с третьей попытки. Ее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Марина Ивановна Ищенко сразу предложила взять для диссертации тему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ая и пользовалась необходимой актуальностью, и обладала большим потенциалом именно для диссертанта, в силу особой близости Юлии к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Юлию консультировал и извест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историк,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Михаил Станиславович Высоков.

В 2009 г.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осуществляемого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ским клубом и редакцией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Сахалин посетил известный кореевед, историк,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кмин (Сеул) Андрей Николаевич Ланьков. По его совету Юлия отправилась в Сеул, где поступила в университет Корё. Это был смелый, отчаянный шаг. Без знания языка, без денег, с надеждой, что это поможет в ее научной карьере.

В Корею Юлия не только получила необходимые прак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теоретические знания, но и выучил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грузилась в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смогла собрать необходимый материал для написания кандидатской диссертации.

Рассказала Юлия и о своей работе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Она является в музее заведующим научно-редакционным отделом, ответственным редактором един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журнала на Сахалине «Вест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я». Часто выступает научным редактором книг и работ сахалинских историков и краеведов, а в 2022 г. стала одним из авторов учебного пособия «Историческое краеведение», по которому ученики шко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ут изучать историю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Получила огромн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от вечера. Юлия сегодня раскрылась для меня и как ученый, и как рассказчик. Так здорово видеть искренность, увлеченность своим делом, в которой раскрывается душа человека. Мы все так или иначе носим маски, но ваш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зволяют на время их снять и увидеть все лучшее, что есть в героях ваших встреч, и главное - это любовь. К близким, к семье, к встреченным на пути людям. И к себе тоже.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исательница Виктория Цой.

Следующая встреч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состоится в марте, героем встречи станет извест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поэт-песенник Тэхо Чан.

Наш корр.
Фото Виктории Бя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статью Ким Тхе Ик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представителя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ладимиру Николаевичу небезразличны проблемы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Он хорошо владеет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находясь сейчас на заслуженном отдыхе, решил осветить одну из проблем –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Автор много цитирует высказы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ученых, в том числе профессора права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Цой Генг Ок.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Р.Коре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это люди, вынужденные в своей жизни четырежды менять гражданство.
Бок Зи Коу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5)

Цитата из работы историка Дин Ю.И.: «Выйдя из-под юрисдикции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не попав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е могли никаким образом оформить с этими странами гражданские и правовые отноше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орейцы Сахалина и их потомки стали лицами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и населением, которое не имеет автоматического права на гражданство.»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статус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прос о гражданском статус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зникает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РК была образована 15.08.1948 г, а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К был принят 20.12.1948 г. До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ействовал Закон о переход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11, временные правовые нормы о гражданстве от 1948.05.11. Имеют л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в 1948 году проживали на Сахалине, и их потомки право на граждан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кон о переход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11, временные правовые нормы о гражданстве от 1948.05.11.

Статья 2, п.1: Родившиеся от отца-корейца получают 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Принят 1948.12.20
Статья 2. Лица, подпадающее под любой из следующих пунктов, являются граждан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1. Лицо, отец которого на момент рождения является гражданин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гласно статей этих двух Законов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1-го поколения, как имеющие запись в родословной книге Чосон ходёк 조선호적 (являлась официальным документом) признавались корейскими гражданами и затем граждан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е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и оформить право гражданства, находясь на Сахалине.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происходит по процедурам 국적회복, 국적판정, которые мы рассмотрим ниже.

Статья 2 «Закона о гражданстве» устанавливает наследова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от отца по признаку кровной узы, этот принцип называется по-корейски 혈통주의.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1-го поколения, репатрировавшиеся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уже официально получили граждан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зависимо от гражданства, которое они имели в России.

Вопрос гражданства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о принятия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фессор Цой Генг Ок (최경옥 교수) рассматривает на примере судебного иска 2012 г.

〈 Дело 2 〉;

Отец Ким родился в 1910г, а мать - в 1924г. в провинции Южный Кенсан (경상남도) и прибыли на Сахалин п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и не смогл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В 1954 г родилась Ким (истлица), родители умерли в чужой стране, не став гражданами СССР. Отец наказал дочери не принимать гражданство СССР, и она проживала на Сахалине в статусе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Дело о подтверждении граждан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го жител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Суд Сеульско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района, отделение 2, 2012 구합, 2014.6.19)

Принудите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е на Сахалин корейцы не могл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по окончании войны из-за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удерживания в СССР.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инципом "кровные узы", применяемым в корейско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не утрачивали св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 без сомнения являются гражданами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Кореи. В данном деле «Отец и мать истица были корейцам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2, Статьей 5 временных правовых норм о гражданстве Закона о переход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и стали граждан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момента опубликования Конституции 17 июля 1948 г. Далее истец стал гражданин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даты рожд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16 о гражданстве Статьи 2 п.1 от 20 декабря 1948 г. Поэтому истица признается гражданин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уд признал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еселившихся на Сахалин из Кореи, гражданами РК, невзирая на то, что Япония установила, что корейцы стали подданными императора Япони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их потомки граждане РК по принципу «кровной узы».

Цитата из выступления профессора Цой Генг Ок: «Обобщая вопрос о гражданстве,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кореец» вписывалась в родословную книгу миндёк (민적) до конца корейской империи (период 대한제국 – с 1897-1910), затем с 1923 г. родословная книга стала называться Чосон ходёк (조선호적) и вписанные в книгу Чосон ходёк (조선호적) признаются гражданами Кореи согласно «Временных правовых норм о гражданстве. И если впоследствии не признавалось утратившим силу гражданство по Закону о гражданстве, то и потомкам передается гражданство по наследству».

Последнее выделен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является ключевым. В Деле 2 отец истицы Ким оставался лицом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до самой смерти, т.е. не утратил 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поэтому суд признал истицу по наследству гражданкой РК. Анализируя положи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суда по Делу 2, профессор Цой (최경옥 교수) подчеркивает наличие проблем в решении суда. Цитата: «Но несмотря на принятое решение суда проблемы остаются.

Во-первых, по этому решению суда лица, добровольно принявшие гражданство России, не признаются гражданами Кореи. Н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больши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няли росси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сходя из реалит жизни».

"Закон об иммиграции и правовом статусе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пределяет термин «зарубежны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재외동포» и напрямую определяет круг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дпадающих под категорию «зарубежны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Лица, имевшие гражданство РК (включая эмигрировавших за границу до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их прямые потомки, получившие иностран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 признаваемые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По этому закону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1-го поколения и их потомки признаются зарубежными корейцами (재외동포)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издается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процедуры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국적회복.

В «Закоме о гражданстве» даны определения процедур - опреде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국적판정),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국적회복).

Опреде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국적판정: согласно Статье 20 п.1 «Закона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выносит решение о гражданстве лица с неподтвержденным статусом гражданина или же его наличия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проверки». п.2 Статьи 2 «Процедуры проверки и вынесения решения и другие необходимые вопросы определяются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Окончание следует)
Ким Тхе Ик (김태익), г. Москв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Москве проходит выставка искусства эпохи Корейской Империи

Подарки, присланные корейским императором Кочжоном на коронацию российского императора Николая II в 1896 году,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выставке в Парадном вестибюле Оружейной палаты Московского Кремля, которая открыта с 10 февраля по 19 апреля. На выставке пять произведений корейских мастеров: двухъярусный деревянный шкаф, украшенный перламутром на чёрном лакированном фоне, две курильницы и два живописных свитка кисти Чан Сын Опа, известного под псевдонимом Овон. Это один из самых значимых корей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конца XIX столетия. Один из двух свитков Чан Сын Оп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Захмелевший Ли Бо», изображает великого китайского поэта. Улыбающееся лицо Ли Бо, который держит рюмку, передано очень подробно. «Поскольку картина написана на бумаге и шёлке в несколько слоёв,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о сохранить произведение», — сказала в интервью KBS искусствовед Марина Фролова, которая реставрировала работу. «Эти произведения сразу попали в Оружейную палату, их долго никто не видел. Мы решили, что корейские памятники нужно обязательно показать, поэтому провели серъёзную реставрацию», — сказал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музеев Московского Кремля Елена Гагарина. «Я придаю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выставке, которая демонстрирует россиянам истор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отправленные императором Кочжоном российскому императору Николаю II на церемонию коронации», — сказал посол РК в России Чан Хо Чжин. Это первая выставка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в Московском Кремле.

Космический аппарат «Танури» сделал снимки поверхности Лу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й беспилотный космический аппарат «Танури» прислал на Землю первые снимки поверхности Лун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3 февраля в Корейском институте аэрокос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Танури», который вращается вокруг Луны на высоте 100 км над поверхностью, своими камерами высокого разрешения сфотографировал 5 января Долину Рейты, 10 января - Море Дождей и 13 января - Океан Бурь. «Танури» прислал также фотографии Земли, которые он делал каждый день с 6 января по 4 февраля. Они показывают фазы Земли со стороны Луны. Лунный аппарат эксплуатируется в рабочем режиме с 4 февраля

Чистая покупка иностранцами акций компаний РК растёт

Чистая покупка акци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иностранными инвесторами достигла в январе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за девять лет. По данным комитета финансового контроля,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сумма покупок 6 трлн 146 млрд вон (4 млрд 840 млн долларов) превысила сумму продаж. Инвесторы из США купили акции на 1 трлн 621 млрд вон (1 млрд 276 млн долларов), за ними следуют инвесторы из Люксембурга на 1 трлн 596 млрд вон (1 млрд 256 млн долларов) и инвесторы из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на 948 млрд вон (746 млн долларов).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января, иностранцы влад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акциями на сумму 636 трлн вон (498 млрд долларов), что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30% их рыночной капитализации.

В РК усугубляется проблема бедности среди пожилых людей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пенси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к 2085 году уровень бедности жителей страны, рождённых в 2020 году, составит 29,8%.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указывает на долю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5 лет с уровнем дохода ниже среднего. Ожидаемый показатель в два раза выше, чем средний прогноз для стран-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развития (ОЭСР). В числе причин такой ситуации - низкий размер пенс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20 год, на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приходилось лишь 25,5% дохода пожилых граждан. Это не только ниже средних показателей по ОЭСР, но и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ниж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Японией и Австралией, где уровень бедности среди пожилого населения тоже относительно высок.

У Ли Хэ Ин золото на чемпионате четырёх континентов-2023

17-летня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фигуристка Ли Хэ Ин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на чемпионате четырёх континентов по фигурному катанию 2023 года в Колорадо-Спрингс. Она стала первой за 14 лет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чемпионата. Ли Хэ Ин набрал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10,84 балла, на 1,55 балла опередив свою соотечественницу Ким Е Рим, которая стала обладательницей серебряной медали. Бронза у японской фигуристки Моне Чибя. Чемпионат четырёх континентов - ежего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юза конькобежцев, открытое для фигуристов со всех континентов, кроме Европы.

(RKI)

Дочь Кима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а ядерные ракеты: в Пхеньяне прошёл ночной парад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9 февраля рассказали в подробностях о состоявшемся в Пхеньяне накануне вечером крупном военном параде, посвящённом 75-летию основания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КНДР. Страна чучхе не обманула ожидания зарубеж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было показа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неизвестной до этого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КНДР, включая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ракеты, подразделения тактическ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танк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На параде присутствовал и лидер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 который снова появился с женой и 12-летней дочерью Ким Чжу Э.

Надо признать, что иностранные наблюдатели, которые задолго до нынешн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начали выдвигать предположения касательно парада, сумели угадать многие детали мероприятия.

Парад начался в среду вечером, когда в Пхеньяне уже стемнело. В 20:30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стартовали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они длились около часа, а затем уже был сам парад, который также занял один час. Похоже, что это уже становится традицией для КНДР — проводить парады в тёмное время суток, когда всё выглядит более красочно, грандиозно плюс позволяет усилить эффект впечатляющим салютом.

Впрочем, не световые эффекты были той частью парада, которая интересовала экспертов больше всего. Их внимание привлекала военная техника КНДР. И тут Страна чучхе дала много тем для анализа и размышлений зарубежным военн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Самой примечательной техникой на параде стали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МБР), коих даже по мерка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этот раз было необычно много. Была показана до сих пор совершенно неизвестная твердотопливная МБР, которую вез девятиосный транспортный ракетный комплекс. Согласно оценкам, длина ракеты составила 22–24 метра. Если у КНДР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явилась такая МБР, то это означает серьёзные проблемы для всех потенциальных противников,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США. Дело в том, что до сих пор у КНДР были только жидкотопливные МБР, которые более требовательны к уходу и куда более уязвимы для возможных ударов противника. Твердотопливные системы более мобильны, могут храниться в готовом к старту состоянии долгое время, что затрудняет их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выявление и уничтожение. Эксперты тут же вспомнили, что в 2017 году КНДР показывала меньшую по размерам твердотопливную ракету, которую многие за границей посчитали муляжом. Н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работы были продолжены, и теперь 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есть или как минимум очень скоро будет и твердотопливная МБР. А значит, стоит ожидать новых испытаний этой системы.

Помимо новой МБР в Пхеньяне показали и другие поводы для беспокойства недругов Страны чучхе. По центральной площад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ы проехали, по разным подсчётам, от 10 до 12 самых крупных и мощных жидкотопливных МБР КНДР «Хвасон-17», об успешном испытании которых Пхеньян заяви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мо по себе наличие данной ракеты не было новостью, но удивило их количеств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 этот раз сразу показала больше МБР, чем мы когда-либо видели на ее парадах», — отметил американский эксперт по военной проблематике КНДР Анкит Панда в своем Twitter-аккаунте. В Южной Корее же подсчитали, что по площади проехало сразу больше «Хвасон-17», чем их виде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 ходе публикаций в СМИ КНДР.

Как отметили западные эксперты, в случае оснащения этих ракет разделяющимися боеголовками и при одновременном запуске вся ПРО США не способна будет перехватить их. Было также замечено, что если раньше КНДР использовала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МБР китайские тягачи или мобильные комплексы, которые запрещено поставлять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з-за санкций ООН, то теперь все они бы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 своего рода «привет санкциям».

Помимо явно адресованных США «приветов» на параде был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неприятных новостей и для ближних соседей —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Так, Пхеньян показал крылатые ракеты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сверхкрупные реактивные системы залпового огня (РСЗО), а также несколько видов тактически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KN-23, KN-24 и KN-25. При этом СМИ КНДР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они могут нести тактические ядерные боезаряды, а в структуре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КНДР были заявлены «подразделения по управлению тактическими ядерными комплексами». Если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 т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КНДР вплотную приблизилась или уже начала развертывание тактическ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ТЯО), которое с учетом радиуса действия нацелено на нейтрализацию всего превосходства армий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в обычных видах оружия.

«Появление подобн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является еще одним доказательством той цели, которую КНДР преследует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 создание более мощных и при этом разнообразных видов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 отметил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еульского Форума по обороне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реи Син Чжон У.

КНДР до сих пор еще не проводила испытания ТЯО, но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это произойде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а потом возле границы с Южной Кореей появятся прошедшие на параде системы с тактическими ядерными боеголовками.

Среди других любопытных видов вооружения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параде можно отметить появление нового вид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танка — 152-мм САУ, а также заявление о наличии нового корпуса спецназа — до сих пор о нем не знали, и появление «полка управления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контроля», который, скорее всего, является подразделением космических с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подсчитали, что КНДР стала куда сдержаннее относиться к публ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и о своих вооружениях. Если в ходе предыдущего парада из 152 снимков 60 были посвящены боевой технике, то теперь при практически одинаковом общем количестве (151) связанных с оружием снимков стало заметно меньше — 38.

Помимо чисто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й темы было кое-что интересное в поведении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Как и ожидалось, он появился на параде, но речь не произнес. При этом он снова привел с собой как супругу Ли Соль Чжу, так и 12-летнюю дочь Ким Чжу Э, которая за день до парада посещала с отцом и матерью генералов, и ее фотографии были размещены в официальных СМИ. И снова девочка была показана так, чтобы был очевиден ее особый статус. Отец ее вел рядом с собой, держа за руку, тогда как супруга Ли Соль Чжу шла на шаг позади, а после нее уже следовали высшие военные чины. В ходе парада дочь также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церемонии стояла рядом с папой, тогда как жена Кима опять находилась на удалении. Ее вновь назвали как «любимым», так и «уважаемым ребенком», причем «уважаемый» в официальных публикациях КНДР используется только для вождей. Именно так — «уважаемый» — Ким Чен Ына называли С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сле смерти отца в 2011 году и до официального формаль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Кима на высший пост. Это снова добавило оснований для спекуляций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девочку, возможно, готовят к тому, чтобы возглавить КНДР после Ким Чен Ына. Впрочем,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споры продолжаются, но очевидно, что к 12-летней дочери вождя в КНДР теперь относятся по-особенному и сопровождают ее появление куда большими почестями, чем «простого» ребенка лидера.

По поводу же самого вождя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он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если верить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снимкам, прекрасное расположение духа — часто улыбался, смеялся, активно общался с дочкой и генералами. Одет же он был так, что сразу напомнил его деда — основателя КНДР Ким Ир Сена.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такие ассоциации также провоцируются намеренно.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эпоху правления Ким Ир Сена вспоминают как «хорошие, добрые времена», тогда как время руководства Ким Чен Ира с 1994 по 2011 год сопровождалось для КНДР лишениями и трудностям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NEWSRU)

Количество вещей, забытых пассажирами метро,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Рост спроса на услуги метро после отмены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привёл к увеличению количества вещей, забытых пассажирами. Как сообщили 10 февраля в Сеульск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корпорац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фиксированы 127.387 таких случаев, что на 25,4%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За про-

шлый год метро перевезло 2 млрд 150 млн человек, что на 10,4% больше, чем в позапрошлом году. Чаще всего люди теряют кошельки, далее следуют телефоны, одежда и сумки. 63% всех находок были возвращены хозяевам, 23,3% переданы полиции, 13,8% находятся на хранении.

KBS World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мог сахалинским врачам в решении жилищного вопроса

15 февраля губернатор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молод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работающими в област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едики обратились к главе области за помощью в решении волнующих их вопросов – устроить детей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 спортивные учреждения, получить практический опыт в ведущих институтах страны, решить квартирный вопрос. Все озвученные просьбы взяты в работу.

– Мы очень ценим работник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истемно работаем над их привлечением в наш регион, особенно, в районы. Однако, мало привлекать новые кадры в отрасли, необходимо работать на удержание и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тех, кто уже работает в больницах и поликлиника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Узнать о проблемах, волнующих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могут, в том числе, и личные встречи с ними. На них медики смогут рассказать о том, что их беспокоит, с какими сложностями они столкнулись, а власть примет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или системные решения,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 терапевт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находящаяся в декретном отпуске, рассказала о трудностях в решении жилищного вопроса. Семье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приобрести квартиру в Корсакове на льготных условиях. Поможет в этом «Сахалинск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Кроме того, ребенок терапевта будет устроен в детский сад, а мужу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кажут содействие 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В совокупности этот комплекс мер позволит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ысить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семьи и удержит востребованн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в районе.

Жилищный вопрос также помогут решить врач-рентгенолог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офтальмологу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имени Анкудинова и эндокринологу центральной поликлини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Благодарна за помощь. Встреча прошла в очень теплой атмосфере. Мне предложили приобрести квартиру в рамка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потеки. Это интересный вариант. Кроме того, моя дочка хочет ходить на плавание, найденн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понсоры подарили ей сертификат на бесплатное посещение бассейна.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эндокринолог Центральной поликлини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Лариса Шаблакова.

Врач-бактериолог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имени Анкудинова попросила помочь в очном повышен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пециалист отправится в НИИ антимикробной химиотерапии в Смоленске – там, по словам врача, находится лучшая в стране база по антимикробной терап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здали Комитет семей воинов Отечества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такой общественный орган появился в конце но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одственники сахалинских защитников организовали комитет на островах. Он позволит еще эффективнее решать вопросы оказания социаль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которые несут службу на Донбассе, и их семьям.

Первое собра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семей воинов Отечества сегодня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новом общественном объединении состоят семь женщин – родственники и членов семей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области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выбр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митета. Губернатор регулярно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встречи с общественницами и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решать вопросы, волнующ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их родных.

Роза Замалдинова подняла тему обеспечения одеждой раненых. Женщин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ее сын находится в госпитале.

– Все обмундирование теперь испорчено. В больницу его привезли почти раздетым. Там выдали пижаму. Он говорит, что все хорошо, кормят отлично, но попросил выслать деньги на гражданскую и военную одежду, – поделилась мама защитника.

Глава региона распорядился обеспечить военнослужащего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 Благодаря вам мы слышим каждого бойца и из первых уст узнаем, какая помощь требуется защитникам Родины. По одежде для раненых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выработаем механизм. На месте должен быть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по звонку доставит снаряжение защитнику в больницу. Все должно работать, как часы,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можем решить любую формальную или неформальную задачу – улучшить быт на передовой или организовать лечение для пожилой мамы дома. Для этого нам необходима обратная связь с защитниками и их семьями.

С конца прошлого года жены и матери островных бойцов по очереди совершают поездки на Донбасс. На месте они помогают улучшить быт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на службе. В зону СВО накануне отправилась уже седьмая группа женщин.

По заявкам воен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и, учитывая просьбы родствен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бойцов,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набжает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В зону СВО регулярно отправляют грузы с продуктами, медикаментами, обмундированием, бытовой техникой. Помимо этого, закупают средства связи,

транспорт, квадрокоптеры. Были переданы также бронированные внедорожники.

Женщины из комитета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недавно отравили бойца рации и ретрансляторы. Но потребовалось еще дорогостоящее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для шифрования разговоров.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взять вопрос на контроль.

Общественницы также поблагодарили за реабилитацию, которую организовали дл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 област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Медико-психологическую помощь получили уже более 250 человек. Большинство бойцов после этого захотели вернуться в строй.

Руководителем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митета семей воинов Отечества стала Екатерина Шарафиева – член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 Благодарю за оказанное доверие возглавить комитет.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сегодня мы встретились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лично. Важно, что есть прямая связь между главой региона и членами семей тех ребят,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находятся на Донбассе. Они не понаслышке знают о тех или иных моментах, которые нужно менять и улучшать на передовой. И чтоб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 оперативно решать эти проблемы, нужна поддержка руководства области. Нам предстоит большая работа. Сейчас у нас определен актив. Необходимо еще охватить все район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чтобы собрать больше информации, где и какая помощь необходима, – отметила Екатерина Шарафиева.

Отметим,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уделяют и поддержке семей защитников рубежей Родины.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региональная выплата, оказывается помощь с ремонтом жилья, заготовкой топлива, устройством детей в детские сады или школы ближе к дому и решении других важных для людей вопросов.

Напомним, о создании Комитета семей воинов Отечества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на встреч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 матерям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которая прошла в резиденции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 Ново-Огареве 26 ноября.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митета выступили ведущие российск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Женщины России», «Союз семей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оюз женщин России», «Матери России».

100 новых автобусов выйдут на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маршрут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ехнику, работающую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собирают на Минском автомобильном завод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вывести на линию первую партию из 30 автобусов уже к майским праздникам. Современные машины сделают бесперебойной работу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 улучшат эколог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мне поступают обращения от сахалинцев, что транспорт приезжает не вовремя, люди опаздывают на работу или по своим делам.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из-за того, что автобусы старые и нередко выходят из строя. С выходом на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маршруты современных машин мы сведем к минимуму такие поломки. Сейчас ждем первую партию – 30 автобусов. А до 1 июля на маршруты выйдут еще 70. Тогда южносахалинцы и гости города смогут ощутить и то, что воздух стал чище. Ведь новые автобусы работают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 метане,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ля нового транспорта строится современный автобусный парк в южной части города. Он станет базой для городских и пригородных автобусов, здесь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ся все виды техниче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ремонта техники, а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создадут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 Сейчас производятся бетонные работы по второму корпусу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блока. Все идет в графике, наша мечта становится реальностью, – 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Транспортная компания» Сергей Павлов. – Новый автобусный парк будет в сто раз комфортнее для водителей и всего персонала. Там будут комнаты отдыха, душевые, столовая, спортзал. Мы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разработке проекта и рады, что наши пожелания учли.

Площадку на улице Пограничной, где располагался старый автобусный парк, сегодня активно освобождают. К демонтажу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омещений приступили в конце января. Ход работ губернатор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 накануне во время субботнего объезда по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Как рассказал вице-мэр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италий Данилов,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несли здания, которые выходят на Пограничную и могут представлять угрозу для жителей.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ы по демонтажу планируется к 15 марта.

Напомним, что на этой площадке Газпром за соб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 возведет ледовый дворец.

Сахалинские аграрии готовятся к малой посевной

Несмотря на снег на полях, уже в марте островные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 приступят к работам. Качественные семена аграрии приобрели благодаря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засеять не ме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 порядка 2000 га картофелем и 600 га овощами открытого грунта. Этого достаточн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вежей продук-

цией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Малая посевная кампания начнется в марте с семян капусты и продлится до мая. В каждом хозяйстве разработан специальный график посев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роками созревания – от белокочанной до цветной, кольраби, краснокочанной и других видов. Также будут высажены томаты, перец, баклажаны. Семена для посева в теплицы на рассаду закуплены уже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Старт весенне-полевых работ намечен на первую-вторую декаду мая –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 Сейчас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и начали переборку семян картофеля, заложенных на хранени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сего предстоит подготовить 7,2 тысяч тонн. Также аграрии планируют приобрести более 500 тонн элитных семян картофеля с целью сортообновления и сортосмены. В этом мы им оказываем активную поддержку. Семенной картофель необходимо периодически обновлять, так как его длительное выращивание приводит к снижению урожайности и качеству клубней. Поэтому мы субсидируем до 70 процентов затрат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семян с учетом доставки до региона, – рассказа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катерина Сливкина.

Семена приобретаются только 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Обеспечение ими аграриев – одно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как и во всей стране, идет планомерная работа по развитию селекции и семеноводства основны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ультур.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троится в постоянном контакте властей, науки и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Так,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 рамках област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два раза увеличил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реализацию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научному обеспечению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ства.

Кроме того, сегодня на базе СахНИИСХ ученые в тес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островными аграриями возобновляют технологию выращивания семе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картофеля отечественных сортов на безвирусной основе. В планах на этот год – вырастить пробирочную культуру микрорастений и мини-клубни, из которых будут получены полевые поколения семян картофеля высоких репродукций.

С 1 января в России стартовал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звит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картофеля, а также овощей закрытого и открытого грун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на условиях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 федеральным бюджетом объем поддержки островных аграриев по данн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составит более 23 млн рублей, при этом объем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составит более 17 млн рублей.

Отметим,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охраняет лидирующую позицию сред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по само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овощами. На сегодня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беспечивает ими себя на 66 процентов. Основной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местных агропредприятий и фермеров составляют овощи открытого грунта. Также благодаря тепличным комплексам сегодня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круглый год обеспечены овощами защищенного грунта, прежде всего, томатами и огурцами.

Названы самые массовые физкультурные события Сахалина в 2022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вели итоги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порт – норма жизни» нац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в 2022 году. Самыми массовыми физкультурными событиями минувшего года стали XL открытые всероссийские лыжные гонки «Лыжня России», День физкультурника и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бега «Кросс Нации» – каждое из них собрало по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участников.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веренно держит марку сам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региона страны. С каждым годом мы совершенствуем форматы массовых физ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всё больш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тягиваются» в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Растёт и уровен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стязаний. Наши спортсмены постоянно улучшают свои показатели и достойно выступают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сё это – результаты качественной и планомерной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порт – норма жизни» нац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ём Подшивалов.

Всего в 2022 году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провёл более 100 физ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участниками которых стали свыше 3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числе популярных у островитян мероприятий – всероссийский полумарафон «ЗаберФФ», лыжный марафон им. И.П. Фархутдинова, фестиваль по мотоциклетному спорту No place to run и др.

Кроме того, при участии ЦСП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57 соревнований, в которых состязались более 4000 спортсмен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ие атлеты и команды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свыше 30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за пределам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реди них – первенство России и всероссий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сноуборду, первенство ДФО по эстетической гимнастике, финальный этап XI летней Спартакиады учащихся России 2022 года, первенство ДФО по дзюдо и др.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일린스코에 마을에 석유탱크 하역 터미널 가동

투자계획의 실행 덕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이 확보될 전망이다. 현재 토마리와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에 연료 공급을 철도로 운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안전하다. 공급되는 연료는 기업을 비롯해 주민들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 동부광산회사가 투자계획을 실행하여 석유탱크 터미널은 일린스크-사할린스키 철도역으로부터 직접적인 인접 구역에 배치된다. 철도로 운송되는 석유탱크는 이송 시스템을 통해 석유탱크 수송 차량으로 옮겨진다.

새로운 터미널에서 이달에 첫 석유탱크의 이송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동부광산회사는 일린스코에 마을에 컨테이너 형태의 주유소를 건설할 계획인 가운데 우글레고르스크와 사흐초르스크와 보스나코보에 도 유사한 주유소 5곳이 운영된다.

사할린의 '3D-시뮬레이션 전국 학생 올림피아드' 결승 참가자 공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전국 3D-기술 학생 올림피아드 예선 결과가 발표됐다. 여러 지역들에서 참가한 79개 팀이 기술을 겨루는 가운데 경기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유청소년 창작회관에서 진행됐다. 경기 종목은 '3D-시뮬레이션(3D-인쇄)'과 '입체회화(3D-펜)' 부문에서 이틀간 진행됐다. 경기 참가자들의 기획들을 전문가들과, 프로그램 기술자들, 연구가, 전문 분야 교사,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평가했다.

5학년-11학년 우승팀은 사할린주를 대표해 2023년 4월 11일-13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전국 단계에 출전하고, 9학년-11학년 <교과> 부문에 우승팀은 매해 '테크노프럼' 국제 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노위시비르스크에서 열리는 전국 본선 경기에 참가하게 된다.

[우리말로 깨닫다]

양반춤을 추는 사람

양반춤은 느릿하면서 도 정제된 느낌의 아주 멋 들어진 춤입니다. 이 양반춤은 누가 추는 춤일까요? 저는 양반춤 이야기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반춤은 다른 대부분의 민속춤이 그러하듯이 양반을 풍자하기 위해서 추는 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성 오광대 춤을 보면 양반의 탈을 쓰고 춤을 춥니다. 분명한 풍자입니다. 양반은 이렇듯 늘 풍자와 질시의 대상입니다. 비꼬고 싶은 존재이면서 되고 싶은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양반이!'라는 표현과 '양반은 못 된다'라는 표현을 비교해 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풍자의 모습을 강조하면 양반은 위선적인 느낌을 줍니다. 점잖은 척, 안 그러는 척하는 모습을 담습니다. 결과 속이 다른 모습이지요. 아마도 비가 와도 뛰지 않는 모습이 양반에 대한 시선을 위선이나 딱 막힘으로 고정화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양반춤을 추는 많은 모습은 이런 양반을 담고 있습니다. 웬지 풍자가 깊으면 불편하기도 합니다. 내 춤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풍자의 모습을 강조하면 양반은 위선적인 느낌을 줍니다. 점잖은 척, 안 그러는 척하는 모습을 담습니다. 결과 속이 다른 모습이지요. 아마도 비가 와도 뛰지 않는 모습이 양반에 대한 시선을 위선이나 딱 막힘으로 고정화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양반춤을 추는 많은 모습은 이런 양반을 담고 있습니다. 웬지 풍자가 깊으면 불편하기도 합니다. 내 춤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저는 양반춤을 양반이 추는 춤으로 보고자 합니다. 물론 춤의 시작에는 풍자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양반춤은 양반이 출 때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덜 관심을 갖고, 먹고 사는 일에 무심한 양반이지만, 그래도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곧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반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존중하였습니다.

어떤 양반이 한 평생을 살고 나서 즐겁게 춤을 춥니다. 느린 춤사위지만 흥겨움이 넘쳐납니다. 어깨춤에 몸이 들썩들썩 거립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한 가득입니다. 이런 모습을 '만면에 미소를 띠고'라고 표현하였을 겁니다. 이 웃음은 꽃을 피우는 맑은 웃음입니다. 웃음꽃입니다. 부채를 접고 펴는 소리에 듣는 이의 흥도 절로 오릅니다. 양반의 부채소리와 청중의 손뼉소리가 조화를 이룹니다.

한 평생 세상을 살아보니 여러 일이 있었으나 살만하더라는 기분 좋은 고백입니다. 늙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는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느리게 사는 것도, 부드럽게 사는 것도, 웃으며 사는 것도 나이를 먹으니 자연스레 되더라는 수줍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춤을 추며 한 발로 균형을 잡고, 사뿐사뿐 뛰기도 하고, 시간이 멎은 듯 잠깐 모든 동작을 멈추기도 합니다. 팔과 다리를 멀리 뻗기도 하고, 하늘 보고 땅 보고 웃기도 합니다. 세상과 나의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순간입니다. 나머지 잊어버리는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춤입니다.

양반춤의 시작은 풍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꿈꾸고, 추는 춤은 깨달음입니다. 양반춤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양반춤은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을 살아낸 모습으로 맑게 추는 춤입니다. 보는 이는 춤추는 이의 삶에 수긍하고 함께 맑은 미소를 짓습니다. 살아온 날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순간입니다. 양반춤은 늙은 양반의 맑은 춤입니다.

저는 요즘 양반춤을 배웁니다. 비교적 쉬운 동작처럼 보여 배우기로 했으나 정작 배우야 할 것은 춤 동작이 아니라 춤 속에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인생이었습니다. 얼굴 한가득 기쁜 웃음으로 추는 양반춤, 저도 그런 춤을 추고 싶습니다. 어쩌면 한참 지난 후에도 춤 동작은 다 배웠는데 맑은 웃음은 짓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이걸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니 말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에 호감도와 우호도를 높이도록

(2면의 계속)

유치원 한국어 교육의 경우 예전에는 한글학교 형태로 지원을 했다가 2017년부터 한글학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은 학교만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유치원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과 채택을 높이려면 유치원부터 한국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고, 1세대와 4세대 간 모국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유치원 한국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020년부터 약간의 교육자료 경비를 지원 합니다. 현재 2개원만 지원하고 있구요.

- 올해 12월에 사할린 한국교육원 30주년인데 교육원에서 이미 관련 행사를 계획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교육원 개원 30주년 행사를 못하고 가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사할린에서 한국교육원의 개원이 가지는 의미를 살려 새로운 원장님이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30년의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되짚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개원 초기에 고생하셨던 분들 인터뷰도 하고 영상으로 담아 12월의 행사에 선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30주년의 의미를 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원장님께서 인사발령을 받으셨는지요?

- 제가 소속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월 초에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규모가 적당한 석관중학교에 교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3월 2일부터 정식 출근합니다.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원보다는 더 어려울 것이지만, 예상되는 업무라서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 원장님께서 새고려신문에 첫 인터뷰를 하실 때 세계의 민속춤을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결국 한

민족 문화반을 통해 민속춤 가르쳐주시고, 노래와 춤을 즐기시는 분으로서 한인사회에서만 아니라 사할린 사회에 많은 활동으로 기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속춤 수업은 2020년 10월에 처음 열었다가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단았고, 2021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가가린공원 풀밭에서, 춤 광장에서, 교육원 강당과 앞마당에서, 또 고르니 보즈두흐 정상에서도 춤을 추었습니다.

코로나로 별세하신 허남훈 선생님의 그 말씀이 계속 맴돕니다. "사할린 할머니들이 춤추고 웃고 즐거운 것은 처음 보네. 옛날부터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어." 전 제가 좋아했던 세계의 민속춤 강좌를 열었지만 사할린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있구나' 하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혹은 사할린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과 공간입니다. 특히 공원의 춤광장은 큰 매력입니다. 한국에서 만약 소공원에서 춤춘다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올텐데, 여기서는 같이 춤을 추고 사진과 비디오도 찍고 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춤을 배우고 싶어서 코르사코브에 사시는 오손만 형님께 댄스 그룹을 물어봤는데, 저에게 그룹을 안내하고 데려갔어요. 말은 잘 못 알아듣지만 춤에 관한 한 척하면 척이지요. 집에 혼자 있으면 무덤같은 기분에 드는데, 배운 춤 연습을 거듭하여 1달 만에 공연했고, 4개월 만에 스포츠댄스 대회에도 나갔습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겠지요. 초보자 그룹에서 파트너 1등, 솔로 2등을 했고, HOBBY그룹에서 파트너와 2등을 했고 솔로 1등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교사 시절에 봉

산탈춤 연수를 받은 적 있는데, 이것을 살려서 탈춤을 취보자고 또 2달간 맹연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체부라쉬카'유치원에서 탈을 쓰고 한삼 펠러이며 간소화된 봉산탈춤을 처음 공연했고, 사할린국립대 임 엘베라 교수님이 그 영상을 보고, 한국탈 장식하는 마스터클래스에서 학생들과 참가자들과 탈춤을 추자는 제안을 하셔서 함께 추었습니다. 여러 송년행사에 초대받거나 가게 되면 반드시, 탈과 한삼, 소고,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를 넣어 갑니다. 분위기 봐서, '이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나서게 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만큼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죠.

- 사할린에 있는 동안 무엇이 가장 마음에 드셨고 무엇이 단점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미 말씀 드렸지만, 자연과 공간, 눈이 시리게 넓은 시야, 그 공간 안에 춤광장 이런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1세대 어르신 댁에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어르신이 좋아하는 노래인 '아리랑', '노란 샤쓰의 사나이' 등을 마이크 반짝이며 노래를 불렀던 기억, 사할린 스포츠댄스 대회의 수상 기억, 봉산탈춤을 소개한 일들,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모험가적 사업들 예를 들면, 민속춤 교실, 글쓰기 교실, 지방도시를 돌며 하던 여름 캠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KBS한민족 방송이 주최하는 세계한민족체험하기 대회에서 사할린동포들이 대상을 수상한 것 등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2021년 박영자 '아리랑'무용단 단장님, 2022년 한국 문화반 수강생 김경순님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그런 소식 전하러 KBS한민족방송에 출연했고, 거기서 김경순님이 개사한 노래를 무반

주로 불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쉽게 잊혀질까요?

단점은 딱히 없습니다. 비행기로 세계를 날아다니며 국내 출장 오고 가던 힘겨움도 다 모험의 여행이 아닌가요?

- 사할린과 작별 소감, 독자들에게 전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 루고위예에 사시는 김영자 어르신은 교육원에 들르시면 꼭 새고려신문 2매를 가져가십니다. 아무리 활자 신문의 시대가 갔다 하지만, 새고려신문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글로도 남겨야 할 역사들, 읽혀야 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의 이야기, 자신의 성장 이야기, 지금의 자녀들을 키운 이야기 등 내 삶의 역사를 글로 계속 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KBS에도 보내고, 새고려신문에도 보내고, 교육원 장한테도 보여주시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어로 쓰시고 번역해도 됩니다.

사할린을 떠나는 날이 올까 했는데 왔습니다. 그 즐거운 3년 역사의 이야기가 있기에 더 오고 싶을 겁니다. 다시 뵙는 날까지 안녕히, 건강히 계시고 춤추며, 글쓰며, 즐거운 마음 드러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의 새 학기를 열고, 나는 가야 하는 이 상황이 아쉽지만, SNS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공부하는 모습 자주 보여주기 바랍니다. 연결되고 소통되는 길을 닫지 않고 살면, 이제 슬픈 헤어짐은 없다고 봐요. 평화가 온전히 오는 날, 자유롭게 만나 보기 위하여 건강한 삶, 즐거운 하루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간 배움과 즐거움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 바쁜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소망들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Сделать предложение второй половинке, считают россияне, можно на маяке "Анива" или в ресторане "Высота 601",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на курорте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ахалин주, 극동연방관광구에서 휴양과 휴식을 위한 곳으로서 상위 3위 안에 들다

러시아 연방 휴양-러시아 예약 사이트가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비수기 휴식에 적합한 곳을 분석했다. 이 시기에 극동 지역에서 가장 저렴하게 쉴 수 있는 곳은 마가단주이고, сахалин주의 휴양소가 2위를 차지했다.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시기는 휴식의 비수기로서 сахалин주 요양소에서 휴식은 1일 평균 6,050 루블리가 든다. 이에 비해 연해주 지역은 평균 9,420루블리로 나타났다. 이 휴식 비용에는 숙박, 식사, 치료 절차가 포함돼 있다.

비수기 휴식에 가장 비싼 곳은 모스크바, 크라스노다르, 스타브로폴 변경이다. 숙박비는 1일 1만 루블리이며, 크림 반도에서 1일 2인 숙박비는 7천 루블리이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ТОП-3 доступ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в ДФО для отдыха в санаториях

Портал бронирования Санатории-России.рф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 доступность отдыха в межсезонье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дешевле всего в это время отдохнуть в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А вот сахалинские санатории оказались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К межсезонью отнесли отдых в период с февраля по апрель 2023 года. Так, отдых в санаториях на Сахалине обойдется в среднем в 6 050 рублей в сутки. Для сравнения, в Приморье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ет 9 420 рублей. В стоимость отдыха включено проживание, питание и лечебные процедуры.

Дороже всего в межсезонье отдыхать в санаториях Москвы,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и Ставропольского края. Размещение там обойдется в 10 тыс. рублей в сутки. А, например, в Крыму — около 7 тыс. рублей за двоих

человек в сутки.

사회복지재단 직원 사칭, сахалин 주민 공격

сахалин 주민들에게 익명의 사람이 전화해 연금 금액 재계산 구실로 신용카드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사건이 сахалин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 사기꾼들이 자신을 연금재단의 지원이라 사칭하고 있다고 сахалин주 러시아 연금재단연맹 홍보부가 전했다.

연금재단 측에서는 최근에 сахалин의 연금 수급자들의 휴대전화와 집 전화로 연금재단 직원이라 사칭하는 자들로부터 전화가 잦아졌다고 강조했다.

요즘 확산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연금 재계산 통보에 대한 소식과 추가 지급에 대한 내용들로 접근하고 있다. 사기꾼들이 연로한 사람들과 연락 시 상대의 이름, 부칭을 부르며 다가가는 것이 연금 수급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사기꾼들의 주요 목표는 연금 수급자들이 은행에 저축하고 있는 계좌에 전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다.

러시아 сахалин주 사회적 재단 지국은 сахалин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연금재단과 사회보험재단은 '연금 및 사회적 보험 재단'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변경되었다. сахалин 지역에서는 сахалин주의 러시아 사회적 재단 지국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재단의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은행 신용카드의 번호를 요청하거나 에스엔에스(SNS)로 코드를 묻거나, 총 예금액에 대해 다른 세부 정보를 알려달라고 전화하지 않는다. 러시아 사회적 재단은 모든 수령액 재계산과 지급액을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이 모든 변경사항과 재계산에 대해 알려면 сахалин 사회적 재단 지국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지역 원격서비스센터 전화번호 8 (800) 600-07-48로 문의할 수 있다.

Мошенники под видом сотрудников ПФР атаковали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исло обращений от граждан, которым звонят неизвестные и под предлогом перерасчета размера пенсии выясняют данные банковских карт, выросл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и этом мошенники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сотрудниками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СФР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ведомстве отметили,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а мобильные и домашние телефоны островных пенсионеров участились звонки от лжесотрудников ПФР. Одна из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х схем мошенников — сообщ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перерасчета пенсии либ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выплаты к ней. При общении с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к ним обращаются по имени и отчеству, что вызывает доверие пенсионеров. Главная цель мошенников — получить полный доступ над банковским счетом, на котором пенсионер хранит сбережения.

Отделение Социального фонда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сит сахалинцев проявить бдительность и обращает внимание на следующее.

С 1 января 2023 года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России и Фонд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преобразованы в одну структуру — Фонд пенсионн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действует Отделение Социального фонда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трудники Социального фонда никогда не звонят гражданам с просьбой сообщить номер банковской карты, код из входящего смс-сообщения, общую сумму сбережений и другую под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Все перерасчеты и выплаты Социальный фонд России производит гражданам автоматически. Если от пенсионера в каком-то случае потребуется заявление, то он будет приглашен на прием в клиентскую службу СФР или офис МФЦ. Также ряд заявлений граждане могут подать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Позвонить в областное Отделение Социального фонда, чтобы узнать обо всех изменениях и перерасчетах граждане могут в будние дни с 9:00 до 17:00 по номеру телефон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 8 (800) 600-07-48.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8-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